

##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도(正道)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방재시험연구소의 방재기술세미나를 위하여 조선, 해운 그리고 보험 업계를 비롯하여,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의 막을 연 1차 산업혁명은 Hardware적인 면에서는 인간이 석탄과 철광석을 이용하여 육상에서는 철마를 달리게 하고 해상에서는 증기선을 띄우게 함으로써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채발행 등 금융수단의 강구 못지 않게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한 Software의 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와 같이 현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화재등 방재관련 분야의 연구 및 시험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와 다름 없었던 시대에 저희들이 뛰어들어 노력한 결과 오늘에 와서는 선진외국의 유사기관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방재기술의 습득과 보급으로 국산 방재산업의 제품 및 시설구조물의 품질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연구소는 해양수산부, 노동부 및 건설 교통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방화성능시험분야 등 10개 분야에 대해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검사기관으로도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연구소는 과학기술처로부터도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인천국제공항 방재시스템분석연구, 공공건물의 화재안전진단 및 피난구조기술개발, 스틸모델하우스의 내외벽 내화성능시험연구와 컴퓨터 화재

모형 프로그램 응용 및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육상건물 등의 화재안전관련 업무만을 해 오다가 88년 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박방화용품 25개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최근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등 세계 6개 유명선급의 화재시험기관으로도 지정받아 선박화재안전분야도 저희들의 주요한 관심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외국시험기관에 의존해 왔던 국내조선 기자재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우리 연구소에서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외화절감은 물론 시간 및 경비절약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의 우리 주변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등으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 및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범세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세계일류의 화재시험연구기관인 미국의 UL, FMRC, 영국의 FRS, LPC, 독일의 VdS 및 일본의 건축연구소, 소방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선진방재기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FMRC와 일본의 건재시험센터와는 상호 기술협정을 맺어 국제교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단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무슨일이든 어려울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일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듭함으로써 각부문의 기술지식이 집대성되는 것이 곧 우리경제의 생산성향상의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방재기술세미나」가 지니는 깊은 뜻을 헤량하셔서 끝까지 동참하여 주시고 이왕 여기까지 오신김에 연구소의 시험연구현장도 둘러 보시고 돌아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 3. 19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창규